스포츠 포커스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

전국체전 금 3개·동 2개 여고부 전국 최강 굳히기

▲ 여수정보과학고 유도 선수단이 전국 최강을 위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2000년 창단…올 회장기·용인대기 휩쓸며 2관왕 올라

지난 11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유도경기가 열리고 있던 순천 팔마체육관.

전남 여고부는 지난해 4체급을 석권하며 전남 여고부 유도 사상 첫 4체급 석권이라는 이정표를 세우며 여고부 종합1위의 성적을 거뒀다. 올 해도 이같은 선배의 전통을 잇기 위한 선수들의 표정이 비장했다.

48㎏이하에 출전한 한기쁨(여수정보과학고 3년)이 분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이후 심기일전한 주수현(여수정보과학고 3년)이 결승에 올라 서울대표 이원욱을 맞아 허벅다리 후리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첫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주수현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두 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어 선수단에 힘을 불어 넣었다.

주수현이 첫 금메달 테이프를 끊자 78㎏이하 최희화(여수정보과학고 1년)가 결승에서 전북 영선여고 심하나를 맞아 유효승을 거두며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무리는 강솔지(여수정보과학고 2년). 78㎏이상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강솔지는 무제한급 결승에서 강원대표 김윤영을 맞아 감아치기 절반을 따낸 뒤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전남에 세번째 금메달을 안기며 지난해에 이어 여고부 종합1위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렇게 전남 유도가 선전한데는 여고부 최강으로 꼽히는 여수정보과학고 선수들이 있어 가능했다.

여수정보과학고는 이번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 6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3개의 금메달과 동메달 2개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000년 5월 10일 창단한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는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다 지난해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추계유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계기로 선수들의 기량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올 들어 회장기와 용인대기 유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라 전국체육대회 메달전망을 밝게 했다.

이들은 방심하지 않고 고향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6~7시까지 1시간동안 달리기등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고, 오후 3~5시까지 대련등 기술훈련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혔다.

또 저녁 7~9시까지 개인연습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했다.

특히 김영휘(53) 여수정보과학고 감독이자 체육교사는 선수들에게 집중과 효율을 강조하며 지도했고, 선수들도 짧고 굵게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훈련에 적응하면서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쌓았다.

김영휘 감독은 "한창 사춘기 여고선수들이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효율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며 "묵묵히 따라준 선수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기쁨은 안다리걸기가 특기로 다리기술만 보완하면 경량급의 최강자로 군림 할 수 있다.

졸업반인 주수현은 유도대학에 이미 진학이 확정됐다. 잡기가 강해서 기술 걸기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정확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보완해야 될 점이다.

최희화는 뒷기술이 장기다. 체력을 보완하고 잡기싸움에 능숙해진다면 태극마크도 달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강솔지는 감아치기가 특기로 잡기싸움만 보완한다면 최중량급의 간판스타로 발돋움 할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기쁨과 주수현은 오는 10월 청소년 세계선수권에 대표로 발탁돼 기량을 세계로 뻗치고 있다.

주수현은 "최강으로 발돋움한 여수정보과학고의 장점에 대해 체력이 강하고, 화이팅이 넘치며 선수들간에 협동심이 뛰어난 것이 여타의 팀들과는 다르다"며"평소에는 평범한 소녀지만 매트에 서면 강인한 승부사로 변한다"고 말했다.

음악듣기, 게임등을 즐기는 꿈많은 여고생들인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는 매트에 서면 '승부의 전사'로 변한다.

3학년인 한기쁨과 주수현이 졸업하게 됨에 따라 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뛰어난 후배들이 많아 내년에도 올 해처럼 여고부 종합1위에 주역을 담당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선배들의 전통을 잇기 위한 여수정보과학고 유도 선수들의 90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메치기는 벌써 시작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거머쥐며 명성을 과시한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 선수들이 교내 체육관에서 정상 메치기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담양한우암소전문점
북구 양산동 청암@103동 뒷편
최고의품질 최상의서비스
100%한우암소전문
☎(062)575-4458

우미일식
북구 운암동 운암 주유소 맞은 편
사시미,회정식,대구탕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구정록
☎(062)512-3302

금회미용실
동구 계림동 광고에서 한국화장품사이 일방로
컷트, 파마 친절봉사
원장 박금희
☎(062)227-2512

밤나라구이세상
광산구 송정동 티파니모텔 건너편
한우모듬구이, 육회비빔밥, 시골애호박국밥
포크생삼겹살,포크생목살 단체예약손님환영
☎(062)942-8599

동주pet world수족관
북구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
관상어, 수족관, 새, 파충류 각종 애완동물 용품
대표 신동주
☎062)267-7553

구어스치킨연산점
목포시 연산동 중앙시장 맞은편 새마을금고옆
기름에튀기지않고 250도 오븐에서 국내산육계만으로구웠습니다.
굽는치킨전문점
☎(061)273-9955-6

경포활어
북구 양산동 양산택지지구 현대오일뱅크 뒤
회정식, 활어 전문
대표 김원희
☎(062)576-8282

청송대패삼겹살
북구 양산동 우미@ 건너
삼겹살전문점 단체손님 환영
대표 송영식
☎(062)576-1118

김가네깐풍기&찜닭
남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정문 옆
48시간 숙성발효시킨 웰빙식품
오픈기념 2,000원 할인
☎(062)651-9288

동원식당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응급실 앞
연화석완비 짱뚱어탕,추어탕,낙지전골볶음,아침식사
대표 박영환
☎(062)672-0222

송정제일장례묘업사
광산구 도산동 공군비행장 후문 앞
묘지이장,화장,사토,묘지석물,납골묘사공,묘지관리 및 벌초대행,풍수대행
대표 김종래
☎(062)942-4442

벽오동
북구 일곡동 롯데슈퍼 뒤쪽
보리밥전문 쌀, 보리쌀, 김치 국내산사용
대표 김경완
☎(062)575-7753

영흥초무침낙지전문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샹그리아 호텔 맞은편
초무침,준치비빔밥,병치,한치,낙지비빔밥,낙지초무침
낙지볶음, 산낙지, 연포탕, 갈치, 병치, 조기매운탕
☎(061)244-7407

참솔공인중개사
북구 양산동 우미@ 뒤
아파트, 상가, 매매, 임대 전문
대표 송계은
☎(062)575-0989

뼈 대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사거리
감자탕, 해장국전문점 24시간 영업
대표 최홍태
☎(062)574-0303

자연생활채식뷔페
북구 일곡병원과 보람산부인과건너
한식,채식,뷔페전문(조미료전혀쓰지않음)
대표 조원희
☎(062)573-9344

깻잎통닭두암점
북구 두암동 청아맨션 맞은편사거리
깻잎후라이드,깻잎양념통닭,깻잎반반,깻잎간장치킨
카레후라이드,가레양념치킨,순살치킨,순살강정
☎(062)261-8833

(사)시니어월드청지기요양복지센터
광산구 도산동 삼라@맞은편
노인장기요양보호사교육및 주,야간보호 목욕 및복지관리
회원수시모집
☎(062)942-2145

옛날즉석우동짜장
북구 오치동 밀알신협 옆
옛날우동,짜장 계절메뉴
새벽2시까지배달
☎(062)266-5588

광주청호담철학
동구 계림동 삼복주차장 대인주차장 옆
작명, 시험, 운명, 궁합, 수맥
대표 류중철
☎(062)224-7649

낙지한마당
북구 양산동 연초제조창 후문에서 동아제약사이
낙지전문점 단체손님환영
회장 이철헌
☎(062)576-9993

오도로참치
부국중흥동 전대후문 건너 복개도로 우측편
참치 전문점
대표 김대철
☎(062)264-4747

건국내츄럴비타하우스
남구 봉선동 모아2차 버스승강장 옆
과일비타민칼슘제,홍삼,상화버섯,녹용,흑마늘
선물셋트 다량보유
☎(062)651-0311

에이피코리아광산샾
광산구 송정동 구)경찰서4거리
여드름,아토피,탈모방지,각종세균,천연향균,생활용품 취급전문
판매사원수시모집
☎(010)5107-9789

땅끝수산직판장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앞
자연산 전복, 민물장어직판장 단체 예약 환영
대표 천병삼
☎(062)263-9886

빛고을홍어마당
북구 두암동 두암 우체국 옆
홍어전문점 단체손님 환영
대표 선영주
☎(062)261-0001